

글로벌 ITS동향

- ◆ (우크라이나) Kistler, 우크라이나에 WIM시스템 250개소 설치
- ◆ (핀란드) MaaS Global, MaaS스타트업 Wondo인수
- ◆ (미국) Swiftmile, 마이애미에 퍼스널모빌리티 허브 설치
- ◆ (미국) NJ Transit, 내비게이션 Waze에 미국 전역 철도건널목 알림 탑재

(우크라이나) Kistler, 우크라이나에 WIM시스템 250개소 설치

- 스위스의 WIM시스템 업체인 Kistler는 2025년까지 250개의 WIM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설치 예정
 - 이미 우크라이나 전역에 45개의 설치가 완료
 - WIM(Weigh In Motion)은 과적차량이 지나갈 경우, 플랫폼에 데이터를 전송해 분석하고, 과적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임
- 우크라이나에서는 노면의 빠른 균열로 인해 도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특히, 수도 키예프에서 도로균열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, 도시 주변 모든 트럭의 약 40%가 과적차량이거나 높이 제한을 위반
 - 우크라이나의 한 도로시설 관계자는, 우크라이나 도로의 수명은 2년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,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WIM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캠페인을 시작



※ 출처: <https://whal.eu//qpgDPOW7>



(핀란드) MaaS Global, MaaS스타트업 Wondo인수

- 핀란드의 MaaS플랫폼 회사인 MaaS Global은 스페인 MaaS스타트업 Wondo를 인수
 - MaaS Global은 MaaS앱인 Whim의 개발사이며 주로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
 - 스타트업인 Wondo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, 현재 MaaS서비스로 87,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
- MaaS Global CEO는 Wondo인수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B2B, B2C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
 - 또한 MaaS산업은 큰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이며, MaaS산업이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밝힘

※ 출처: <https://whal.eu/l/NE8blga7>

(미국) Swiftmile, 마이애미에 퍼스널모빌리티 허브 설치

- 미국의 퍼스널모빌리티 허브 설치 회사인 Swiftmile은 미국 마이애미에 2022년까지 100여개의 퍼스널 모빌리티 허브 설치를 계획
 - 허브는 퍼스널모빌리티의 충전과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내의 쾌적성을 유지하고,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에게 완충된 배터리를 제공
 - 100여개의 허브는 800여 대의 퍼스널모빌리티를 수용
 - 각 허브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며, 공익 광고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송출할 예정
- Swiftmile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퍼스널모빌리티와 허브처럼 기술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
 - Swiftmile은 피츠버그, 워싱턴DC 등에 퍼스널모빌리티 허브를 설치하였으며, 최근 태양열을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파트너십을 모색 중

※ 출처: <https://whal.eu/l/X74P0l17>

(미국) NJ Transit, 내비게이션 앱 Waze에 철도건널목 알림 탑재 계약 체결

- 미국 뉴저지의 대중교통 공기기업인 NJ Transit은 미국 전역 300개 철도건널목에 대한 알림을 내비게이션 앱인 Waze에 탑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
 - NJ Transit은 미국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버스 및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공영회사이며, 경전철 3개 노선과 통근열차 12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음
 - Waze는 이스라엘 기업에서 만든 네비게이션 앱으로써 현재는 전세계에 서비스중이며, 특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이 특징임
- 철도건널목 알림은 운전자들이 철도건널목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림으로써 차량과 철도의 충돌을 예방하는 기능임
 - NJ Transit은 철도 건널목의 가장 큰 안전문제는 운전자들이 악천후나 어둠 속에서 도로 대신 선로로 진입하는 경우라고 밝히며, 해당 알림 기능을 앱에 추가

※ 출처: <https://whal.eu/l/B7G1lPdE>